

정의 · 평화 · 창조(질서)보전 (Justi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JPIC)

발행자: 라정란 부회장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환경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 선행의 총합을 넘어 지구 공동체의 협력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교종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2015년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하셨다. 그리고 2020년 5월 24일부터 1년간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로 선포하고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기 위한 7년 여정에 돌입하였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위한 보편교회의 행동 지침은 △재생 에너지 채택 △탄소 중립 달성 △모든 생명 보호 △원주민과 취약 계층을 향한 연대 △단순한 생활방식 △생태교육 및 여성 함양 등이며, 일곱 가지 목표는 ①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②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③생태 경제학 ④검소한 생활 양식 ⑤생태 교육 ⑥생태 양성 ⑦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로 요약된다. (가톨릭평화신문 2021-10-13).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도 교황님의 뜻에 따라 지속가능한 세계로 나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하기 위하여 특별 사목 교서를 발표하고 공동의 집 지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가정과 본당, 교구, 그리고 사회공동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잘못을 누우치고 생태적 회개의 삶을 전환하기 위해 기도하며 창조·질서·보전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신앙인의 태도이자 자세가 되었다. 이에 본 회에서도 지난 10월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JPIC(Justi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이하 JPIC), 활동가이시며 전문가이신 예수회 조현철 신부님으로부터 특강을 들었다.

본 지면 보수교육에서는 첫 번째 부분에 조현철 신부님의 강의 중 일부를 요약하고, 두 번째 부분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특별 사목 교서 실천지침 중 가정 공동체의 실천지침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의·평화·창조보전(Justi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JPIC)과 호스피스

-조현철 신부 강의 中-

창조 질서란 창조주 하느님이 세상에 놓으신 질서(《기쁨과 희망》 78항 참조)이고, 정의란 이 창조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잘 보전하는 것이며, 평화는 창조 질서 보전 즉 정의의 결과(이사 32,17)이다. 즉 JPIC는 창조 질서 보전, 정의, 평화라는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지만,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적(integrated)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JPIC는 생태영역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생태영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 질서로 우리의 삶과 세상의 모든 영역을 포괄(comprehensive)한다. 예를 들면 사회적 경우에는 경제, 정치, 노동, 인권/차별, 빈곤, 복지, 농촌 등등, 자연의 경우에는 환경 훼손, 기후 변화, 자원채굴 등등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실존적 차원에서 삶의 의미와 삶의 완결로서의 죽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 자연, 개인

은 모두는 연결되어 있고, 특히 죽음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 분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 죽음의 문화는 JPIC를 훼손할 수도 있고 잘 보존할 수도 있기에 호스피스 활동/호스피스 문화가 JPIC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 창조 질서: 관계

「찬미받으소서」 66항에서 창조 질서 관계로 하느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를 말하며 이 세 가지 관계는 근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70항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다. 이 관계들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깨어지면 다른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성경에서)으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존재이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존엄하고 평등한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존중과 돌봄의 관계이다. 그리고 인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은 근원적 한계와 자유의지가 있으며 이런 관계들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삶을 지향할 때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JPIC 훼손

오늘날 JPIC를 훼손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심각한 것은 기후 위기이며 이것에서 다른 측면의 JPIC 훼손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기후 위기는 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본질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있고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서 나온다. 자본주의는 성장경제로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문제가 발생되며 또한 자본주의 성장경제를 위해서는 많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기후 문제가 싹트게 된다.

JPIC 훼손의 근본은 관계의 훼손으로 인간

과 하느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관계가 훼손되는 것이다. 현대적 차원에서 개인 내면의 차원과 사회적 차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기계론적 세계관(세계를 물질이나 거대한 기계로 보기 때문에 피조물은 기계의 부품으로 언제든 폐기 교체 가능하다고 생각함으로써 고유성과 본질적 가치가 상실됨), 기술 관료적 페러다임(힘을 확장하기 위해 인간의 힘으로 끝없는 기술을 개발함), 인간중심주의(인간의 자연개입을 인간의 힘으로 결정하고 자연과 타인을 도구화함)이고, 사회적 차원은 자본주의, 성장, 소비주의이다.

3) 기술의 속성, 기술과 경제, 기술주의

기술에 관한 통념은 ‘좋은 것’ ‘편한 것’이고 단지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기술이 일방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기술에 내재하는 속성(본질적 성격)은 지배와 권력의 추구 형태로 이루어졌다. 인간의 자연탐구 의도도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할 힘의 획득에 동기가 있다. 기술이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글을 인용하면 “작은 산 하나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데 단지 며칠밖에 걸리지 않고, 몇 개의 지렛대를 움직이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그것이 필요한 일이든 아니든 산을 옮기고자 하는 유혹은 커진다.” (볼프강 주커만).

경제도 마찬가지다. 기술은 산업자본주의를 만들어 내고 지속하는데 가장 큰 동력이다. 본격적인 산업화 즉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동력 기술이 출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술은 효율과 이윤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을 추구하는 기술주의 이데올로기가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다. 즉 기술주의란 ‘기술이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기술

로 생겨난 문제도 다른 기술이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예로 볼프강 주커만의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인용해본다. “생산되는 차의 수요가 많아질수록 움직임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차량이 빚어내는 혼잡, 오염, 위협에 관해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고쳐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동차를 계속하여 좋아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것이다.

기술주의는 인간의 유한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신이 되고자 하는 아주 위험한 것이다.

4) 삶과 죽음

기술의 확대는 죽음을 제거해야 할 마지막 영역으로 보고 유한한 존재를 부정하는 죽음의 문제에 도달한다. 죽음을 거부하는 문화는 JPIC를 훼손한다 즉 JPIC는 피조물에 대한 질서이고 죽음은 피조물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창조 질서의 일부이다.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 죽는다. 죽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소비주의/기술주의 사회에서는 물질, 생산, 소비, 효율, 이윤을 말하며, 죽음은 유한하기에 무가치, 부정적인 것으로 거부한다. 죽음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곁도는 삶, 불안한 삶을 살게 되고, 죽음의 수용 능력이 저하 되어 죽기 전까지 유아기적 수준으로 살아 있다가 그냥 죽게 된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도 죽음을 피하기 위해 도피와 탐닉으로 물질, 상품, 소비, 쾌락, 의미 없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사소한 관심거리에 분주하며 젊음에 집착하며 노화는 경멸하게 되는데 이는 필연적 실패이다. 죽음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삶은 왜소화되고 더 많은 소유와 소비, 끝없는 욕망 충족에 삶을 소진하게 되고 자신에게 몰두 하게 되어 타인과의 관계가 무관

심해진다. 이것이 바로 JPIC의 훼손이다.

5) 호스피스 문화의 기여

죽음을 대면하고 수용하는 것은 삶의 근원적 '진실'을 대면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삶이 단순해지며 집착에서 해방되고 순화된다. 호스피스의 역할은 죽음에 저항하는 태도를 바꾸어 죽음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피조물의 유한성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JPIC 회복/보전에 기여하게 된다. 즉 호스피스 문화의 확산은 죽음에 대한 성숙한 태도의 확산이고 삶을 성숙하게 하여 물질주의/소비주의 삶을 극복하게 되고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회복으로 JPIC 회복이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나의 삶은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보여준다. 과거는 현재의 반영이며 미래는 현재의 투사이다. 그래서 현재를 잘 살아야 하고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대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화로운 죽음(미래)은 평화로운 삶(현재)을 살 때 가능하다. 즉 잘 죽길 원한다면 잘 살아야 한다, 이것이 호스피스 활동/문화의 역할이라고 할 때 호스피스 활동은 죽음을 거부하는 소비주의 사회에서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현재를 하느님의 뜻에 맞게 창조 질서를 보전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가정 공동체의 실천 지침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특별사목교서 실천지침 (2020년) 일부-

1)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

생태적 삶의 궁극적인 출발점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

중을 보여 주는 법을 처음 배웁니다. 예를 들어, 사물의 올바른 사용, 질서, 청결, 지역 생태계 존중, 모든 피조물 보호를 배우기 때문입니다.([찬미받으소서], 213항 참조). 가정의 변화는 사회와 세상 변화의 시작이자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어린이들이 하느님 창조의 신비와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해 섬세하게 배려하는 자세를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은 가장 강력한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신자 부모들은 끊임없이 창조 질서에 관한 교회의 사회 교리를 배우고 신앙으로 고무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 창조의 일꾼으로서 피조물의 평화를 위하여 가정에서부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듯이, 병들어 신음하는 생태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과는 달리 '기도 따로, 행동 따로'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기도한 바를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에 부합한 행동을 동시에 요청하므로, 가정에서부터 하느님의 창조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바로 창조 질서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2) 실천 사항

① 생태적 기도

- 생태적 기도는 관계성 회복의 기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관계(relation, relationship)'라는 단어를 70회 이상 사용하십니다. 관계는 피조물 세계의 본질입니다. 관계는 창

조의 본질이며, 창조주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삼위 일체 안에 드러난 관계의 신비를 관상하면 생태계 전체는 창조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주님께 찬미를 드리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흠송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찬미받으소서], 87항).

- 생태적 기도는 자연과 환경보호만을 추구하는 녹색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와 함께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의 모든 순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육화의 기도입니다.
- 생태적 기도는 지구 안에 살아가는 피조물과의 상호 관계성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 안에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경배하는 우주적 기도입니다.
- 생태적 기도는 일상의 모든 순간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통합적 기도입니다.
- 생태적 기도를 위해서는 양심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는 “감사와 무상성의 태도”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선물하셨기에 우리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포기하고 누가 보거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관대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찬미받으소서], 220항).
- 생태적 기도를 통해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언적이고 관상적인 생활 방식”([찬미받으소서], 222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비주의에 물들었던 삶에서 탈피하여, 물질적으로는 검소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황폐해진 피조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② 쓰레기

- “해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고 맹독성이며 방사능이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21항). 쓰레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언어 쓰레기, 행동 쓰레기, 생각 쓰레기, 정보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범주를 물질에서부터 의식과 감성까지로 넓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쓰레기가 넘쳐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러한 문제들은 버리는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찬미받으소서』, 22항).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문화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들어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쓰레기가 넘쳐나고 한정된 자원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③ 에너지

- “많은 과학적 연구는 최근 수십 년간의 지구 온난화가, 대부분 인간 활동의 결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곧 이산화탄소, 메탄, 산화질소와 같은 화학 물질들의 농도가 매우 짙어졌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찬미받으소서』, 23항).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편리함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 7층 이하의 승강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며, 환승역도 걸어 보시다.
- 무엇보다 매사에 서두르지 않고 일과 이동을 줄여 에너지의 흐름을 바라보시다.
- 실내조명을 너무 밝게 하지 않고, 자연 채광이 어디에 있는지 둘러보시다.

④ 식생활 습관

- 근거리 농산물(로컬푸드)을 이용합시다. 수입 농산물은 먼 거리에서 이동해 오기 때문에 그만큼 화석 연료 사용이 증가해 기후 위기를 가중시키며, 방부제의 과다 첨가로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 육식보다는 채식을 생활화합시다. 농지의 83%가 가축 사육에 사용되고 있으며, 농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58%가 동물성 식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됩니다. 이에 서유럽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류세 도입 및 관련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런던의 골드스미스 대학은 캠퍼스에서 기후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쇠고기를 퇴출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작년부터 교육부 행사에서 채식이 기본 식단이며, 고기나 생선은 요청할 때만 제공합니다.

현대 세계의 엄청난 자연 파괴는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가지려는 인간의 무절제한 소비주의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소비주의 생활양식은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귀결되고 끝내 인간과 피조물 전체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미래 세대들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멸종 위기로 사라지고 있는 동식물을 기억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한다면 물질에 대한 욕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에 선을 퍼뜨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가져옵니다.”(『찬미받으소서』, 212항).